

창립일 1967.9.17. | 제59권 6호. 2026.2.8.

* 지난주 강단제목 :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민 16:1-3, 유 1:3-4)

(1부) 오전 8:30 · 인도 : 심한결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2부) 오전 11:00 · 인도 : 박병서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 ★ 입례송
- ★ 예배의 부름
- ★ 응답송
- ★ 예배선언
- ★ 신앙고백
- ★ 경배의 찬양
- ★ 고백과 용서의 말씀
- ★ 주기도
- ★ 성시교독

오르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찬양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 다같이
설교자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주기도송) / 다같이
8. 시편 14편 / 인도자와 회중

아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폐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1-7)

찬송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 다같이
중보의 기도	(1부) 임근일 장로 (2부) 김금남 장로
성경봉독	예레미야 33:1-3(구약 1106쪽), 누가복음 22:44(신약 136쪽) / 인도자
찬양	(1부) 사랑의 노래 / 시온찬양대 (영상) (2부) 빛이 되신 나의 주 / 시온찬양대 (현장)
말씀의 선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복음으로 여는 예레미야- / 설교자
봉헌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같이
교회소식	설교자
★ 결단의 찬송	예수 전하세 /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사단의 왕국을 깨뜨린 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주의 주	
죄에서 해방하신 어린 양 예수 감사하세 찬양하세 증거하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 파송의 말씀	설교자
★ 봉헌기도 · 축도	정윤돈 목사

다음 주 기도 : (1부) 최칠규 장로 (2부) 이은숙 장로

★ 표는 일어서서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부서예배

유치부	오전 11: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2랩년트실
태영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1랩년트실
어린이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1층 비전홀
중고등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대학청년부	오후 3:3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장소: 5층 창시당홀)

수요기도회

시간 : 오전 10:30 / 오후 7:30 : 장소 : 1층 비전홀

기도	(오전) 신혜선 권사	(오후) 이정미 권사
인도, 설교	(오전) 김양순 목사	(오후) 이현규 목사

글요식야기도회

시간 : 오후 8:00 : 장소 : 1층 비전홀

기관보고	시온성가대
설교	박범서 목사

다음 주 기관보고 : 연합남선교회

사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2026 참사랑교회의 응답



오직성경 오직복음 오직예수

(이사야 34:16, 디모데후서 3:16-17)

교회소식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4층 당회실에서 새기족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교회소식

1. 2026년도 상반기 참사랑교회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 신청대상자 : 2026년 대학입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신청마감 : 2월 14일(토)까지)
2. 설 명절 가정예배를 위한 순서지가 5층 참사랑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다음 주 주일(2월 15일)은 설 명절 연휴 관계로 교회에서 점심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4. 매일 구원의 길을 기록하실 분들께서는 본당 앞에 준비된 용지를 가지고 가셔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배시간과 현금안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8시 30분, 2부 : 오전 11시. 장소 : 5, 6층 참사랑홀
 - 2) 수요오전예배, 수요오후예배, 금요십아기도회 / 1층 비전홀
 - 3) 매일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화하여 새벽 5시 30분에 전체 소통방에 올라갑니다.
 - 4) 주일 각 부서의 예배시간입니다.
 - (1) 오전 11:00~12:20 유치부 (2) 오후 2:00~3:20 태영아부
 - (3) 오후 2:00~3:20 어린이부, 중고등부 (4) 오후 3:30~4:50 대학청년부
 - (5) 매월 마지막 주일은 오후 2시부터 렌트부서 연합예배로 드러집니다.
 - 5) 담임방 및 지교회 모임은 시간을 정하셔서 줌이나 전회통화, 유투브를 통해 라이브나 녹화를 하여 양육과 교제와 말씀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6)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토요일에 현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입금하실 때 이름과 현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참사랑교회)
(예 : 000주정 / 반드시 한글기준 7글자 이내)
 - 일반현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 주정, 십일조, 감사, 절기, 차량, 기타현금 등
 - 현대현금 : 신한은행 100-022-072886 • 장학현금 : 신한은행 100-033-576780
 - 선교현금 : 신한은행 100-033-576822 • RUTC현금 : 신한은행 100-035-010731
* 현당, 장학, 선교현금, RUTC현금을 제외한 현금은 일반현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기관 및 교우소식

1. 교역자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정윤돈 담임목사 : 2.9~11 2026 세계어린이수련회 - 덕평 RUTC
 - 2) 박범서 목사 : 2.9~11 2026 세계어린이수련회 - 덕평 RUTC
2. 대학입학시험 일정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 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원, 문정민, 송지수, 안나근, 양승우, 여명, 황세희)
3. 군과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주보 14면에 있습니다.)
4.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권사, 김원일 집사, 이영경 집사, 이순덕 권사, 박숙자 집사)

■ 참사랑 RUTC소식 (정치, 경제, 문화, 보건, 복지, 과학, 예술, 체육, 예능, 교육, 군경, 공무원)

1. 금토일시대를 준비하는 참사랑 RUTC 렌트의 활동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서예교실 : 한 달에 1번(토요일) 10시, 2층 식당. (모집 중)
 - 2) 트리킹체조교실 : 당분간 운영중지. (담당 : 정수환 집사 010-5527-6067)
 - 3) 스키&스노보드 : 동계. (담당 : 박찬열 집사 010-8760-0756)
 - 4) 탁구교실 : 매주 토요일 11:50분, 2층 로비. (담당 : 최혜숙 권사 010-9430-9862)
 - 5) 수목캘리그라피 : 첫째, 셋째 토요일 19:00, 2층 식당. (담당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 6) 기타클래스 : 매주 토요일 14, 17, 19시, 4층 당회실. (담당 : 이명 장로 010-2222-7624)
 - 7) 축구&풋살 : 한 달에 1번.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8) 트리니티찬양교실 : 첫째, 셋째 수요일 14:30분, 3층 제2렌트실. (담당 : 임예진 권사 010-6225-9661)
 - 9) 취미그림교실 : 첫째, 셋째 토요일 17:30, 2층 식당. (담당 : 조수영 집사 010-3777-8315)
 - 10) 복음영어클래스 : 주일(성인) 19시, 토(RT) 3:30분, 1층 초등부실. (담당 : 주은경 권사 010-9542-8212)
 - 11) 드럼클래스 : 매주 토요일 6, 7시, 5층 참사랑홀. 8시 1층 비전홀.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교회소식

- 12) 피아노&기초음악이론 :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친양대실. (담당 : 이석 집사 010-5067-1426)
13) WIO스마트팜 :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2. 연기, 연극, 영화, 방송, 뮤지컬 팀을 모집합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010-6335-3719)
3. '서예교실'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 이현규 목사 010-9736-3556)
4. 피아노&기초음악이론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심한결 목사 010-8206-2024)
- 1) 강사 : 이석 집사. 2) 레슨방법 : 주1회 1시간(개인레슨). 3) 레슨장소 및 시간 : 4층 친양대실, 요일 협의.
 - 4) 레슨비(4주 기준, 1인당) : 피아노 10만원 / 기초이론 6만원. 5) 모집인원 미감 때까지.
5. 취미그림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성악 발성반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희권 장로 010-2334-6713)
- 1) 강사 : 김희권 장로. 2) 레슨장소 : 4층 친양대실.
 - 3) 레슨방법 : ①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회비는 참석할 때마다 1.5만원).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회비 : 월 6만원).
7. 자전거 타는 방법 교육 및 안전교육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1) 대상 : 초, 중, 고교생. 2) 장소 : 올림픽공원(평화의 광장). 3) 기간 : 모집 후 결정.
 - 4) 교육기관 : "스포츠레저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 강안규)
8. 자격증 상담(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생활체육지도사 등)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원격평생교육원 (문의 : 최영경 팀장 010-6777-8692)

■ 혼례 및 집회소식 (해당하시는 분들이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주 토요일 산업선교(오전 9시), 전도학(오전 9시 40분), 핵심예배(오전 10시 30분)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본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층 비전홀에서 핵심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2. 세계어린이수련회가 '영원의 근본(딥후3:14-17)'을 주제로 2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본교회는 유년부 일정(2월 9~11일)으로 인도받습니다.
3. 의료법률전문인수련회가 '근원을 해결할 전도 제자들(행1:1-8)'을 주제로 2월 17일(화)부터 18일(수)까지 진행됩니다.
4. 237화요제자훈련이 2월 24일(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2월 행사 및 일정

구분	본교회 일정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정
1주차	장학생선발공고(1) / 세계대학수련회(2~4, 덕평 RUTC), 제49차 사랑부멤버십대회(4~6, 덕평 RUTC), 청년새내기수련회(7, 참사랑교회)
2주차	2026 세계어린이수련회(유년, 9~11), 2026 세계어린이수련회(초등, 11~13), 중·고등(청소년)합숙 2차(9~12)
3주차	장학위원회모임(15) / 의료법률전문인수련회(17~18)
4주차	상반기 장학금수여식(22) / 237화요제자훈련(24, 덕평 RUTC), 초등합숙 2차(26~28), 멤버십데이(28)

2월 봉사위원 안내

구분	봉사위원
헌금위원	(위원장) 여동훈 (위원) 김금남 라종화 신승훈 박희영 양경아 이정미 임소순 임혜연 박주은 이영경
성찬위원	(5층)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라종화 김현 김경희A 배승찬 (6층) 양경심 임근일
안내위원	(위원장) 박동영 (1층) 양경심 김경희A (5층) 최신혜 이은숙 유경선 고진순 (6층) 이정미
주차안내	안수집사 전원

기도제목

■ 연간 기도제목

1. 참사랑교회를 통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도는 ‘오직성경’안에서 ‘참진리’를 발견하고, ‘오직복음’으로 ‘참치유’를 누리며, ‘오직예수’로 ‘참구원’을 증거하는 참사랑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총회를 통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에 기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는 참사랑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성경적인 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총회와 협회와 노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3. 한국교회를 통하여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2026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 기도문’

- “2026년도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전도자, 제자, 중인의 응답을 앞당기게 하소서”
- (1) 주일강단메시지 성취의 중인이 되게 하옵소서.
 - (2) 복음요절을 암송하여 생명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 (3) 성경 1독, 성경 쓰기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 (4)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그리기를 통하여 전도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5)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의 중인이 되게 하옵소서.
 - (6) 5인 1조의 팀을 형성하여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7) 나의 237나라와 나의 선교사를 찾아 선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 (8)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현장에 참사랑RUTC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9) 유튜브 10분 복음소식을 통하여 비대면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 (10) 복음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 (11) 300전도캠프 현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공원, 병원, 커피숍, 학교, 역, 직장, 소평센터, 노인정 등)
 - (12) 금토일시대에 사설적인 3가지 뜻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 1) W.I.O 협동조합 (스마트팜, 인공지능, 로봇, 생명, 우주)
 - 2) 치유시스템 구축 (증독, 정신, 영, 건강)
 - 3) 예체능 협동조합 (스카, 체조, 탁구, 축구, 야기 등)
 - 4) 고령화시대준비 (100세 목상요가, 120세 모세건강법)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 5) 복음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이 모델적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 (13) 70나라 여행캠프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 (14) 70나라에 병원, 약국, 목상 등 영혼, 정신, 육신 치유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15) 참사랑전도학교,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 참사랑핵심(주일)을 통하여 부흥의 응답을 주옵소서.

현장을 위한 헌신

70인 요원 (24명)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김경수·강승자·김대식 최정웅·전정아 유경형·리중화 주재진·권혜경 김경환·최복순 전인숙·김원일 김경희·임근일(양은숙) 신승훈(박영인) 박점순 정연규(이은숙) 김종복(한명희) 박지영
300인 용사 (131명) / “내가 ...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삿7:7)”
정윤돈 최신영 양은숙 박영인 윤두영 강창숙 최봉식 최신주 박동영 최진희 오국환 이은희 조남은 이은옥 최영철 최후순 최명홍 이계옥 구자성 송영희 허경열 홍승희 박희순 이수용 이미자 유승범 주은경 이영순 박염재 양경심 강현자 김영길 박해숙 김석재 손혜옥 여동훈 백소정 서정례 박철남 이상준 서희석 나향님 이승재 심주환 김현숙 이용곤 김경희 송길호 최신혜 채용민 이효숙 오신자 정세완 박희영 정수환 최승화 박준민 흥인선 주칠우 정선희 권은희 민경환 이명재 구윤진 배형석 박인자 여성훈 노선희 김요셉 김혜경 김남숙 정민호 이서은 최양호 오난희 장성순 박난순 김준자 김 현 임경미 박병서 김진아 김미선 최칠규 한영화 장영호 여준석 김성열 김순호 배승찬 배명자 신옥희 김태운 아남현 오영숙 정향란 강요한 윤홍광 임혜연 박광현 박성혁 이신운 이희숙 왕진상 김선우 김종남 김주영 김영진 변연숙 윤소현 김성순 김요한 백순덕 김금남 김복남 임영순 김옥천 김순이 서성원 박서진 이현주 김선희 강경현 유경선 장년영 양순옥 공영호 박봉기 박준석 이영희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정운돈 최신영 최정웅 전정아 박범서-김진아 심한결-정지혜 이현규-김수진 전인숙-김원일 김정엽 유경형 리중희 주재진-권혜경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이은숙 여동훈 박동영-최진희 최명홍-이계옥 정세완 박희운 박영인 김 현 김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철규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유승범-주은경 김순호 김영진-최혜숙 이 명 이명재 구윤진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계자 이정윤 강공이 이순덕 최송화 김희건 김현성-이미화 김영순 이은희 이영순 이순근 김주영 손병순 임영순 전 진 홍주원 김순자 박인자 최재경 호민수 최아영 김재카-장소녀 조현지 김용관-김정순 문혜영 한영화 박수자 임소순 주예진 정민호-이서은 김명철 장유미 전은정 윤순우 김정연 심성하 나경철-신현식 김나경 정예승 김자수 이민형 김자후-이현주 박찬열 임혜미 오이라 도정호 이효숙 최일숙 윤태자 손혜옥 양은숙 임혜연 권혁복 정수환 최영국-김윤지 조재형 김태운 이아연 안도근 임경미 유승환-최아현 김소라 이진우 장유선-이정수 양경아 박난순 김영희 김승훈-김혜인 유영석 한경숙 이민수-김숙희 조부영 이연균 김창균-임예진 채송아 안선희 오유라 홍경아 여현지 방주은 윤치현 이주형 배준서 홍명숙 무명5		
십 일 조	정운돈 이현규-김수진 전인숙 김원일 김애경 윤순우 박점순 이수용 오신자 임소순 손병순-박정수 김용관-김정순 소구영-장영호 유충현-강공이 정민호-이서은 김재카-장소녀 배준서 홍경아 박주은 이효숙 신승훈-박영인 안나근 고진순 양경아 유영석 안선희 호민수 박동영 최명홍 김자후-이현주 채송아 유경형-리중희 최보인 최일숙		
감사헌금	정운돈 최신영 최송화 김애경 박진수 윤성희 김계자 이가예 양경심 박학규 강공이 전 진 김용관-김정순 홍경아 김재카-김용관 정민호-이서은 김자후-이현주 정수환 방주은 이효숙 김현진 이계옥 최신혜 김태율 조재형 조연희 박영인 이은숙 유경형-리중희 박동영-최진희		
심방헌금	지복순 임상식-임민재-지성순		
신년감사	무명		
차량헌금	박동영-최진희		
일천번제	최신영		
선교헌금	조현지 이은희 김용관-김정순 임소순 임영순 김재카-장소녀 오신자 김자후-이현주 김순호 유승범-주은경 정수환 방주은 안도근 신승훈-박영인 고진순 김승훈-김혜인 김창균-임예진 오국환 박동영-최진희 유경형-리중희 최일숙		
스리랑카 치유센터	정수환 방주은 정민호-이서은 오신자 스리랑카 치유센터(2026년도 합계) 90,000원		
현당헌금	정운돈 최신영 전정아 김용관-김정순 김재카-장소녀 오신자 장영호-소성국 임영순 임소순 김자후-이현주 방주은 유승범-주은경 김순호 정수환 조현지 신승훈-박영인 고진순 김승훈-김혜인 조부영 오국환 박동영-최진희 박지영 정수환 최일숙		
장학헌금	박범서-김진아 이수용 유승범-주은경 방주은 김순호 임혜미 정수환 신승훈-박영인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유경형-리중화		
어학연수	정수환		
RUTC헌금	박범서-김진아 이현규-김수진 방주은 정수환 신승훈-박영인 고진순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 이름이 누락된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6. 1. 28. ~ 2026. 2. 3.)

현당헌금 (2026년도 합계)	29,561,000원	차량 구입헌금 (2026년도 합계)	100,000원
참사랑 RUTC헌금 (2026년도 합계)	1,661,000원	어학연수헌금 (2026년도 합계)	190,000원
현당대출잔액 : 일본법화 455,000,000엔 (한화 4,322,500,000원 / 100엔환율=950원기준)			
일반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69840 참사랑교회 현당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072886 참사랑교회			
선교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822 참사랑교회 장학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780 참사랑교회			
참사랑 RUTC : 신한 100-035-010731 참사랑RUTC			

2026년 구역조직

- 교구장 : 정운돈 목사

- 1교구(1~3지역) 담당교역자 : 박범서 목사 | 총무 : 이미자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밀줄은 미션 훈련수료자)
1지역/ 최진희	①오금1 (오국환)	박인자	최진희	최정웅 전정아 박동영 최진희 박서윤 박찬열 배형석 박인자 배영광 정우연 배고은 박점순 이신순 최일숙 조영희 장혁준 최봉식 최신주 최해나
	②오금2 (박동영)	김주영	주은경	정운돈 최신영 정예승 정예준 정예건 이재풍 김주영A 이승현 이지훈 유승범 주은경 유현나 유현상 유준상 유민상 주종성 박학규
2지역/ 이미자	③방이1 (이수용)	양경아	유경선	이수용 이미자 이채은 여준석 양경아 여명 여수아 정철호 유경선 이진수 정동주 정동훈 이은순A 김홍기 문길순 김갑례 임상식 지복순 박서이 박필수 박소현 박경구 박도경 박세연
	④방이2 (최칠규)	홍미경	이미자	최재혁 홍미경 최옥현 최모연 백은진B 윤소현A 윤대현 윤차현 박현우 김정선A 최종현 김명자 김성배 강길자 김윤우
	⑤천호 (유경형)	리종화	홍경아	유경형 라종화 이대수 홍경아 이지오 이태이 홍형표 유승환 최아현 유나림 유하림 이영숙 박철남
3지역/ 김금남	⑥잠실 (이은숙)	조부영	김소라	조부영 양승현 양승우 횡규철 김소라 황다인 황세희 박광현 조영주 박근혜 박지혜 박지영 최보인 권순민 최형란 권유나 권유빈 이효수 채송아 채정우 전민식 구순자 정재홍 전혜진 정리아 조현지 오은사 권구현
	⑦송파 (임근일)	양은숙	박승숙	김금남 김수령B 김수민 임근일 양은숙 임혜연 유영석 박승숙 유세정 유진아
	⑧하남 (김경희)	김영희	한영화	이현규 김수진 이시은 김경희A 현백규 김현아 김영희 황혜주 강정자 최칠규 한영화 최종인 손병순 김준석 윤수연 조수영 홍주원 최영국 김윤지 최리오 심성지 심성하 유지열 송수민
서울 경기	㉔박범서 목사			장미선 김희서 김원준 김유진 문예은 최한나 최한별 권우현 정민진 김대욱 박유신 김혜원 김기채 고정호 고정협 스모모 강지우 전영종 김유나 이재준 이시연 손완식 양은예 손보미 손현우 손보국 이정택 이은순B 이가원
	㉕심한결 목사			권세미 원철호 홍정아 강예은 강예림 김형준 박현주 김민규 최영희 김정남 김효경 권영숙 구성하 김수정 김성애 이아름에 코 박준영 박준은 박지유 김미선 이해승 이해준 이현우 이은우 조유연 조옹연 이재운 민희선 김가원 김도원 도상철 체희은 도성용 김경현 강소영 김유원B 김소은 김석재 김정길 박순연 박준민 황인선 박수진 박수정 이종관 서숙정 이주한 이지한
	㉖이현규 목사			윤지은 최명자B 고대중 박형진 류성미 박하능 박하론 안진성 문경화 안서윤 안채윤 안신영 신한수 이은주B 신민승 신연서 한경숙 변지영 박형석 강둘봉 박요셉 구황경 이선미 구아라 구지후 이기덕 김복란 이광훈 김명화 최민지 최민기 천용 이유림 최자원 조현우 이재원 여상훈 노선희 여준후 여선후 박은선 김준일 최숙영 김하은 김유은A 김은성 송형자 정화영 헌주아 한태빈 최영철 최후순 최요한 최지은 최두영 오주희 최하랑 최하린 김해수

※ 위 명단은 각 구역원과 기도대상자의 명단입니다.

2026년 구역조직

- 2교구(4~6지역) 담당교역자 : 심한결 목사 | 총무 : 양정심 장로 - 3교구(7~9지역) 담당교역자 : 이현규 목사 | 총무 : 최신혜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밀줄은 미션 품 이상 훈련수료자)
4지역/ 김계자	⑨오금3 (정세완)	박희영	임경미	정세완 박희영 김 현 임경미 김 수 김혜린 정연규 <u>이은숙</u> 김춘례 임수미
	⑩오금4 (주재진)	신혜선	권혜경	김계자 <u>주재진</u> 권혜경 주예진 신혜선 유연정 유지훈 임경순 <u>양순옥</u> 임선규 김태운 김금녀 이종남 김영순
	⑪오금5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u>최명홍</u> <u>이계옥</u> 최송화 정수환 정재환 전성배 박은서 김영중 김준영 김민성
5지역/ 양경심	⑫울림파1 (김현)	장길순	이영순	유윤식 장길순 유효진 유윤재 이영순 박준석 설정화 박수환
	⑬울림파2 (여동훈)	정년영	김정연	정년영 김정연 한공순 <u>허경열</u> 허지선 박성진 박서연
	⑭울림파3 (양경심)	이현주	양경심	박염재 <u>양경심</u> 박주은 박주영 <u>김수형A</u> 이현주 김지후
6지역/ 김순호	⑮강남 (김순호)	손혜옥	임소순	김원일 전인숙 김구영 빌 마 김의찬 김주찬 안경호 <u>김순호A</u> 안도근 안나근 안예근 손혜옥 김주원 김혜원 임소순 천혜숙 <u>강현자</u> 김나경 김희경 김경애 이정민 조연희 조재형 조현근 고경훈 김두원 김세희 안선희 안민희 안현희 최영혁 김현진 박진수 윤성휘
	⑯구리 (유승범)	이정미	임영순	이상구 이정미 이진형 최가은 이민형 이주형 전진 임영순 임동영 장유진 이정수 장유선 이진우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전은정
7지역/ 이명	⑰오금6 (배승찬)	이명	임예진	박범서 김진아 <u>배승찬</u> 이 명 배준서 배현서 김창균 임예진 김혜원A 김재승 윤순우 구자성 <u>송영희</u> 이명재 구윤진 이미화 김자영C 김민영 김근호 백순범 윤혜영 백소율 백하율 박환희 오상수 원태연 원아연 김희관 김승훈 김혜인
	⑱오금7 (이명)	최혜숙	홍명숙	김영진 최혜숙 김시언 김시아 최아영 홍명숙 손가을 손히늘 <u>오신자</u> 나콜라 박경아 라 나 아멜리 김순자 이병부 <u>김정엽</u> 김윤태 박숙자 <u>도정호</u> 유경순 도규철 이연균 도지민 김선희 <u>김순호B</u> 이 하 안지용 안수현
	⑲오금8 (여준석)	고진순	이선아	<u>오국환</u> 이은희 오유라 오아라 유제숙 고진순 방주은 정문철 이선아 정유호 정은유 김창대 이정임 김아리 김아영 위준승 문정민 김애경
8지역/ 최신혜	㉑문장 장지 (라종화)	최신혜	이가예	송길호 <u>최신혜</u> 송은수 송영민 송지수 신성원 이가예 신현우 신지유 <u>장영균</u> <u>송미경</u> 장현규 장현우 장이준 장이서 장성순 박난순 장하영 장하은 민경환 권은희 나경철 신현식 나주희 나종훈 박진순 박주봉 박주승 장소녀 김지웅 김정B 유정빈
	㉒가락 (정연규)	백소정	정선희	<u>여동훈</u> 백소정 여현지 여종원 여은성 주철우 정선희 주이준 주이언 이용도 최재경 이다연 이아연 정민호 이서은 노은현 손상현 <u>이군재</u> 이순근 이수산나 허가이 임혜미
9지역/ 박영인	㉓거여 마천 (최진희)	박영인	이순덕	<u>신승훈</u> <u>박영인</u> 신동윤 이정윤 이순덕 이영경 호민수 정은숙 박지현 이 석 김재우 유충현 <u>강공이</u> 유승호 전주율
	㉔강동 (신승훈)	정향란	김숙희	심한결 정지혜 심주언 심지언 정향란 이민수 김숙희A 이하연 이하준 김은영 차영민 차승민 장영호 소선미 합조식 소숙현 함재이 오인태 김자영B 오하림 오후운 김선옥 김지수 김성재 윤태자 정창호 김미현 정승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복음으로 여는 유다서-

민수기 16:1-3, 유다서 1:3-4

서론 : 믿음의 중요성과 증거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생명을 건 믿음이 되어야 한다. 나의 작은 누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리가 서울 반포에 살 때 나는 신반포교회를 다녔고, 작은 누님은 서문여고를 다니며 친구를 따라 가는 길에 있는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이 되었는데도 누님이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었다. 공부를 해야 할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 가니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니 하나님께서 그 후로 누님의 삶을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것을 목격했다. 하나님께서는 누님에게 일본에서의 직장과 대학의 문을 다 열어 주셨다. 누님이 처음 일본에 갔을 때 바로 대학에 간 것은 아니었다. 가장 힘들다는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곳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너무나 성실하게 일하니까 그곳 이사장님이 감동하여 "너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다. 사실 누님이 일본으로 떠날 때 어머니께서 주신 언의 말씀이 있었다. 어머니는 "너는 가지만 내가 돈은 하나님도 보태줄 수 없다. 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꼭 공부를 해라"라고 하셨다. 실제로 누님은 일본에 갔을 때 어머니가 패딩점퍼 하나 보내준 것을 외에는 금전적인 지원을 거의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을 아르바이트로 해결하셨다. 그런데 어느 날 누님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 편지 내용이 전무후무한 감동을 주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핵심은 이것이었다. "알바를 해서 돈이 너무 없고 힘들지만, 빙자 미자 써 버릴까 봐 십일조를 미리 떼어 봉투에 넣고 풀로 붙여 버렸다." 그 내용을 보면서 누님의 믿음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은 그런 누님을 끝까지 지켜주셨다.

그 누님의 아들인 내 조카 이야기도 있다. 조카가 일본에서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했을 때 학비가 비싸서 어떻게 다닐지 걱정했다. 그런데 로티리 클럽인지 리아온스 클럽인지 장학재단에 합격했다. 장학생으로 뽑히면 학비 전액은 물론이고 우리 돈으로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였다. 특이한 점은 그 장학금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달 현찰로 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참석해서 인정수를 하게 했다. 현금을 주니까 모임에 안 갈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다. 그렇게 돈을 하나님도 안 들이고 박사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석사만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유를 물어보니 "일본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라고 했다. 그래서 백시학위를 포기하고 왔지만, 한국에 와서 직장생활을 잘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직장에서 받은 우리시주를 결혼자금으로 쓰려고 팔았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그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다고 한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작은 결단이 복의 근원이 되어 천대까지, 후대까지 지 응답을 주는 것이다.

우리 후대 중 한 명이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 그런데 나는 그 아이를 보며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 아이는 공부는 안 하고 왜 교회에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등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지 의아했었다. '오늘도 왔네? 재는 공부를 포기했나?' 싶을 정도였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고3이 되었을 때 서울대에 원서를 썼다고 했다. 나는 솔직히 믿음이 있어서 예배드린다면 다 되니? 저렇게 공부를 하는데 서울대에 썼더니 확실히 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기적같이 확실히 불어 버렸다. 서울대에 합격하고 지금은 홍콩에 가 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흔히 3 서ment(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을 이야기한다. 서울대학교에 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솔직히 나도 우리 교회에서 대단한 서ment이 나를 것이라고는 확실히 믿지 않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이끄시는 것을 보니, 예배에 성공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까지 나오는 이들은 다 성적이 좋다. 원래 공부를 별로 못했던 아이들도 다 잘하게 되고 학교에서도 '올 A+'를 맞는다. 목사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은 연결같이 다 그렇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인다. 여러분 중에 "나는 서울대학교를 못 갔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

또 다른 예로 우리 교회 후대인 서지웅 군의 이야기를 하겠다. 이 친구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어릴 때부터 내가 매일같이 성경공부를 시켰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성경 읽어뵈리" 하면 읽지 못했다. 그런데도 성경공부 시간에는 빼지지 않고 꼭 와서 앉아 있었다. 고3 말이 되어 이제 사회에 나가 공장에서 일해야겠거나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에게 와서 '목사님, 저 대학 갈 거예요'라고 했다. 속으로는 '한글도 모르는데 무슨 대학이냐 싶었지만, 기적적으로 미달인 곳이 있어서 토통과에 합격했다. 그런데 대학에 가서부터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선교국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는데,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 등수가 나오는 시스템에서 항상 1등을 했다. 항상 메시지를 들으며 공부하고 학교를 다녔다. 그러더니 대학공부를 마치고 토통기사 자격증도 땄다. 나중에는 두부이에 간다고 했다. 내가 예전에 "나는 가족이 있으니까 무슬림 선교하다 순교하면 안 되지만, 너는 고아니까 죽어도 괜찮다. 무슬림 선교 해라"라고 했던 말을 언약으로 붙잡은 것이다. 꼭 순교하려 간 것은 아니지만, 메시지 속에 지나가듯 한 말을 언약으로 잡고 도전한 것이다. 거기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지금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에서 감독으로 일하고 있다. 고3때까지 한글을 못 읽던 아이도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면 회망이 있다. 나아, 학벌 일부 관계없다. 문제는 찰된 믿음으로 영적 새움을 하지 못하고 속는 것이다. 믿음이 없으니 교회 안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축복을 놓치는 것이다. 한 번이라도 진짜 믿음을 보여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질병, 자식 문제에 빠져 있지 마라. 말씀에 성공하고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시고 앞서서 문을 열어 주신다. 우리 후대들이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같은 3단체를 능가하고 흑암을 꺾

는 팀이 되기를 기도하다.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어야 한다. 다윗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1천 명대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은 학업과 산업현장에 영적 망대를 세우고, 괴수꾼으로서 밤을 지새우며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한다. 괴수꾼이 졸면 성무이 열리고 정복당한다. 가정과 현장에서 괴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남은 자', '랩넌트', '그루터기'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들어가는 말씀 : 유다서의 배경과 경고

오늘 본문인 유다서는 영적으로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다. 예수님이 육신의 동생이 유다가 기록했는데, 꾸지람과 정계의 내용이 많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꾸지람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싶어할 수도 있지만, 유다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강하게 말했다. 당시 교회 안에 불신앙적이고 구악에서 금지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성도가 영적 쌔움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막막해한다. 총이나 대포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나누고자 한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에게 대항하여 당을 짓고 250명의 지휘관을 이끌고 반역했다. "당신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리더냐, 우리도 다 거룩하다. 왜 당신들만 스스로 높이느냐"라며 대들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맞먹으려 듣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을 우습게보고 부정적인 것만 찾아내는 병들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부모님께도 마찬가지다. 효자들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한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권위를 인정하고 경청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쓰임받는다. 들을 줄 모르고 대적만 잘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고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일은 구약시대나 조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난다.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강압적으로 시키면 잘하는데, 우리 교회처럼 복음과 사랑으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안 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길 축복드린다. 사시에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어린 아이, 젊은이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것처럼 갈급한 자세로 예배드리고, 갈급한 자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야 된다. 배가 부른 사람처럼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리와 그를 따르던 250명의 무리는 땅이 갈라져 죽거나 불이 나 죽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를 목격한 백성들이 "모세 당신 때문에 저 훌륭한 사람들이 죽었다. 하나님이 너무 심하시다"며 월망하다가 염병으로 14,700명이 죽었다. 믿을이 없으면 별것 아닌 작은 행동들이 모여 전체 분위기를 망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특별히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 감정되지 않은 뒷담화들이 퍼져 나가 교회를 병들게 한다.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신 것이다. 이러한 저주가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처음에는 기본적인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 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주제를 바꾸어 성도가 꼭 알아야 할 영적인 교훈과 경고를 전하게 되었다. 이후 기본적인 것을 폴리서 양첨난 실수를 범하고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영적으로 흑암에 접하면 인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해질 수 있다. 거짓말, 사기, 도둑질 등 독종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마귀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진짜 끝없이 더러워질 수 있고, 그러나 선한 것은 하나님 없고 누구나도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우리를 살리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 않는가?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로 이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나온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는 형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후 평생을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야고보와 유다는 성경까지 기록했다. 그들은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다. 예수님을 정확히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가 조금이라도 아이나 음란함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단과 잘못된 자세를 경계하며, 하나님과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다. 영육 간에 온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감싸며, 그들이 복음으로 거듭나고 지유하도록 힘은 차유사명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베드로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30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갑자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먼저 된 사명자와 전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1. 구약의 타락 사례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성경이지만 수준 높은 영적 경고를 담고 있다. 수신자가 유대인 배경을 가진 기독교 인들이었기에, 그들이 잘 아는 구약의 사건들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1) 광야 백성들의 불순종 (유다서 1:5) "우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구원과 믿음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광야는 "광야교회"와 같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혼련받은 곳이다. 교회생활도 마찬가지다. 예배, 복사, 전도, 훈련 등 할 것이 많다 보니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맞다. 기도의 배경이 없고 당대에 처음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노예근성과 죄의 체질을 뽑아내기 위해 더 큰 고난을 겪기도 한다. 독을 빼는 과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을 때는 환호했지만, 광야에서 매일 만나만 먹고 춥고 더우니 모세를 원망했다. 불평할 이유는 충분했다. 그러나 그 월망 때문에 멸망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월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2) 타락한 천사들 (유다서 1:6)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천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겉박으로 흑암에 기두셨으며" 천사들의 죄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교회, 가정, 직장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 "나, 하나님 빼놓고 되겠지" "이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하는 생각이 문제다. 아빠, 엄마, 자녀, 할머니, 할아버지, 직부지의 역할, 전도자의 사명, 성도를 돌보는 것을 포기하고 삶을 때가 있겠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받은 축복은 잊고 밟지 못한 것만 탑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본질이다. 자기가 이미 받은 축복은 생각하지 않고, 밟지 못한 것에만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천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나님을 친양하고,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졌으며, 하나님 다움 기는 권세를 누리는 복된 존재였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대항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이미 받

은 축복이 너무나 많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받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지 모르겠다. 내 제자 서지옹은 성도 이름도 없는 '생고아'였지만(서씨 성은 그를 거둔 권사님의 성을 딴 것이다) 불평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성공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AI강국으로 도약하는 등 업청난 기회의 땅이다. 무엇이 부족해서 불평하는가? 언의를 굳게 붙잡으라. 하나님이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나라이다. 왜 그런가? 세계복음화하리는 것이다. 언약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3) 소돔과 고모라(유다서 1:7) "소돔과 고모리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올라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다른 육체'는 동성애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티락의 끝이 동성애라고 말한다.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다. 물론 선천적이거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빠진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하고 도와야 할 전도대상자다.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정죄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책임이다.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 인간은 끝없이 더러워질 수 있다. 날마다 복음으로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된다. 완전히 복음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린다. 오직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축복과 응답이 다 실제가 된다. 진짜 그렇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육하고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저는 기도하고 있다. 내가 과거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고아인 아이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 100명 이상을 공부시켜서 대학에 보냈다. 그 아이들은 도시락만 겨우 챙기고 헤나니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었지만, 결국 100명 이상을 다 대학에 보냈는데. 제가 서울에 와서 여러분을 보니 여러분은 다 '가능성'이다. 서울대를 나왔든, 혹은 한글을 못 읽든 상관없다. 여러분이 복음과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전문인이 될 수 있으며, 전도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의 싸움, 곧 영적 싸움은 바로 이것이다. 다른 문제로 심각하게 인상 쓰고 고민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복음과 전도를 고민하라. 예배에 나와서 집중하라. 아이들이 공부는 안 해도 말씀을 들으니 변화가 일어났다. 자기가끼리 모여서 메시지를 받아 적기 시작했다. 설교 말씀을 적는 습관이 드니까 나중에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년이 지나도 예배시간에 졸고 집중하지 못하며 땀생각을 한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지고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확실히 붙잡혀지면, 그 렘브트 후대나 성도들은 애릴 수가 없다. 반드시 다 축복을 받게 되고 흑암이 꺾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 다.

(4) 가인의 길(유다서 1:11) 가인은 질투하여 동생을 죽였다. 그는 피 없는 제사, 즉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렸다.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예배야 한다. 가인은 복음과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차치하던 종교생활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단순히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갖추어서 그리스도가 되어줄 이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자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흑암의 머리를 밟으시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당신 자신을 희생하였다. 그러므로 나도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해야 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 뿐만 아니라 경제, 건강, 가정, 직장, 학업의 모든 길을 여실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하신 말씀처럼 그 응답을 받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문제를 끝내는 것이 참된 예배다.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우리의 후안인에는 지혜, 지식, 정치성향(좌파, 우파), 학벌, 그리고 옥각, 고집과 이집이 들어 있다.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며 인생 쓰는 모습, 그것이 바로 '나다'. 반면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 순종하고 복종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은 혼과 영의 싸움이다. 영이 악연에 혼에게 지게 된다. 또한 육신에게도 진다. 돈, 티락, 중독 같은 육적인 것에 빠져 폐해가 된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이며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5) 빌립의 어그러진 길(유다서 1:11) 빌립은 돈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터락시킨 선지자다. 직접 저주할 수 없으니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인계로 유혹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하면 하나님을 치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돈 때문에 성도를 터락시키는 행위다.

(6) 고리의 패역(유다서 1:11) 앞서 말했듯 영적 지도자에게 대적하여 분열을 일으킨 고리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다. 고리는 당을 지어 영적 지도자에게 대적했다. 고리 한 사람 때문에 250명의 지휘관이 동조했고, 그 결과로 만 명이 넘는 백성이 죽음을 맞이했다. 고리는 본래 예배를 가장 잘 드려야 할 레위지파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믿수가 1장 축보를 보면 그는 분명한 레위 자손이다. 그러나 레위지파라 할지라도 예배를 잘못 드리고 종교인이 되면, 결국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는 "당신만 레위 자손이니? 나도 레위 자손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며 대들었지만,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었다.

(7) 불신앙에 빠진 악한 사람들의 특징(유다서 1:12-13) 성경은 이러한 불신앙에 빠진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너희의 애찬의 임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복자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기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풀을 맴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칭찬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표현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임초'란 무엇인가? 물 밑에 숨겨져 있어 보이지 않지만, 배가 부딪히면 파선하게 만든다. 교회 안, 성도들의 교제(애찬, love feast) 속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다가는 것이다. 부딪혀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을 파선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처럼 건조한 땅에서 구름이 기면 비가 와야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열매 없는 가을' 나무도 마찬가지다. 가을이 되었는데 열매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교회나 가정, 직장에서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언약과 복음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자칫 우리도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유다는 바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2.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했다.

(1) 믿음과 감사로 싸우라 광야에서 다 불평할 때 예호수와 갈렙은 오직 믿음과 감사로 승리했다. 여러분이 그

지난주 주일낮예배 메시지

대표가 되어야 한다. "누가 어쨌다" 말하지 말고 내가 응답받아 내가 살리면 된다. 내가 우리 나라 살리며, 내가 우리 교회 살리고, 내가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면 된다. 헐털루야.

(2) 주어진 지위와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라 사탄은 "이어서 안 되고 저래서 못 한다"며 평계를 대개 만든다. 타당한 이유가 많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내가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문제는 마음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음속에 온통 돈, 돈, 돈 생각뿐이다. 정작 돈도 벌지 못하면서 매일 돈 타령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불집으면 하나님께서 길과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다. 남이 받은 축복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 된다. 남이 잘되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나. 비결이 뭐냐. 나도 좀 알려달라"고 물으며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성공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러므로 이침, 점심, 저녁으로 24시간 복음과 말씀에 친숙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번 주에 우리 저희자님이 공연을 하셨는데, 그곳에 파이프 오르간도 있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신혜 자매가 그곳에서 연주를 했는데, 파이프 오르간이 한국에 몇 군데 있다고 하더라.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열미든지 성도들과 함께 누리면서 음악회도 가고, 문화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세계복음화도 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행복한 복음의 공동체인가? 여러분이 그 사역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3) 영과 육을 거룩하게 보전하라 끓을 것은 끓어야 한다. 술, 담배, 마약, 도박은 영호를 악하게 만든다. 사탄은 그것들을 통해 우리 삶을 짙어버린다. 거룩한 쪽으로 방향을 틀면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을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다.

(4) 복음을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려라 가인처럼 그리스도의 심자가,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예배는 종교에 불과하며 흑암을 이길 수 없다.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으로 회생하셨다. 나도 교회와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단해야 한다.

(5) 돈과 권력, 교만을 경계하라 발람과 고라는 돈과 권력 때문에 실패했다. 삶의 이유가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과 행동의 목적이 돈이나 명예라면 쓰임받지 못한다.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저분이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구나"라고 느껴져야 한다.

결론 : 전도자의 자세와 송영

이 세상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유다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전도와 전도사명자의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유다는 마지막으로 권면한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이다. 또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볼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했다. 미약, 도박, 종독, 기정불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등, 지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한다. 이것이 전도자의 사명이다. 동시에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했다. 예전에 품질통에만 들어가서 전도하는 분이 계셨다. 우리도 신학생 때 팀을 짜서 가봤는데, 그분은 미담과 아가씨들을 불러놓고 복음을 전하더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 계속 그 지역만 하시다가 돌이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청소년사역이나 특수사역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 전문성과 영적 준비 없이 "내가 강과를 전도하겠나"고 덤비다가 오히려 내가 그 죄에 빠지거나 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 호기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죄는 미워하되 영혼은 불쌍히 여겨야 하며,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며 사역해야 한다.

결론이다. 평생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와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참사랑 RUTC현황 (예체능체험교실)

	시간 & 장소	담당자		시간 & 장소	담당자
여행캠프	모집 시	정창호 집사	서예교실	한달 토 10:00, 2층 식당	모집 중
트릭킹체조교실	당분간 운영중지	정수환 집사	스키&스노보드	동계	박찬열 집사
탁구교실	매주 토 11:50, 2층	최혜숙 권사	수목캘리그라피	1, 3주 토 19:0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기타클래스	매주 토 14, 17, 19시 4층 당회실	이명 장로	축구&풋살	한달 토 오후	김승훈 집사
트리니티찬양교실	1, 3주 수 14:30 3층 제2腼년트실	임예진 권사	취미그림교실	1, 3주 토 17:30 2층 식당	조수영 집사
복음영어클래스	매주 토 15:30, 주일 19시 1층 어린이부실	주은경 권사	드럼클래스	매주 토 18, 19, 20시 5층 본당, 1층 비전홀	김승훈 집사
파이노& 기초음악아이론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이석 집사	WIO스마트팜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정윤돈 010-8033-5678	부목사	심한결 010-8206-2024	목사(전도파트)	김양순 010-8328-0132
원로목사	최정웅 010-5260-5511		이현규 010-9736-3556	협동전도사	전인숙 010-8881-5222
부목사	박범서 010-6335-3719	교육전도사	배고은 (네덜란드파송)	사무간사	박난순 010-9930-5558
전도인	최진희 이미자 김금남 김계자 양경심 김순호 이명 최신혜 박영인				
장로	(시무)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리종화 김현 여준석 김경희A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최진희 박영인 유승범 김순호A 이명 김영진 (협동) 이군재 전민식 강공이 (해외) 최봉식 (은퇴) 이정재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명예) 박철남 김계자 이정윤				
찬양대	(지휘) 고경훈 (오르간) 이서은 임예진 (피아노) 최신영 최송화 이석 (비올라) 채송아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교회학교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5층, 6층 참사랑홀	태영이부	주일 오후 2:00	3층 제1랩넌트실
	2부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3층 제2랩넌트실
	오후 2:00	1층, 3층, 5층 (부서별 예배)	어린이부	주일 오후 2:00	1층 비전홀
	오후 3: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2:00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수 오전 10:30	1층 비전홀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3:30	5층 참사랑홀
금요십아기도회	수 오후 7:30				
새벽기도회	금 오후 8:00				
	월~토 오전 5:30	영상			
자체훈련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새기족훈련	주일 오전 10:20	4층 당회실	산업선교	토 오전 9:00	1층 비전홀
복음소식	주일 오후 12:30	3층 주간보호센터	전도학	토 오전 9:40	
태영아공동육아	수 오전 11:30	3층 제1랩넌트실	핵심요원훈련	토 오전 10:30	
어린이사명자	주일 오후 1:00	3층 제2랩넌트실	중직자대학원	주일 오후 5:00	
종교기도회	주일 오후 1:40	5층 참사랑홀	초등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집중전도신학원	수시	참사랑교회	청소년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국내외선교지

선교사파송 100명(협력 및 후원기관)

- ① 심주환선교사(일본 히로시마) ② 배고은선교사(네덜란드) ③ 이종우선교사(일본) ④ 이성국선교사(러시아)
- ⑤ 횡규영선교사(네팔) ⑥ 임호성목사(서울역 노숙자학교) ⑦ 왕선교사(RTS C107) ⑧ 정화권선교사(필리핀신학교)
- ⑨ 김동길선교사(케냐) ⑩ 서해영선교사(카자흐스탄) ⑪ 문철선교사(팔라완) ⑫ 벤자민목사(인도)
- ⑬ 서진태선교사(스리랑카)

군파송자

[육군] 백승원 송영민

해외파송자 (26)

- [미국] 최형란-권순민(권유나 권유빈) 김국한 박석훈 최봉식-최신주(최해나) 강지우 이진형-최가은 정예준
- [호주] 박영준-김수미(박윤성 박민성) 박영환 [영국] 박경아-니콜라(라나 아멜리) [네덜란드] 배고은
- [일본] 오유라 [인도네시아] 전민식 구순자

교회 역사

오금동과 함께 성장한 교회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정리하는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자촌 주민들은 청소차에 실려, 허허벌판이었던 오금동에 버려졌습니다. 한 가구에 주어진 여섯 평의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정착민들을 안티깝게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천막 하나를 빌리고, 직접 복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것이 오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입니다. 대미리산에 세워진 조그마한 오금중앙교회 성전은,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 부임한 최정웅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오금중앙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2005년에 참사랑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7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해답, 참된 사랑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참사랑교회는, 2018년 최정웅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정운돈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건강한 교회이며, 58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자라온 토박이 교회입니다.



교회 소개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참사랑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후대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 |

많은 후대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첫째의 우선순위로 삼고, 지역 인재 장학사업, 방과 후 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참사랑교회는 창립 이후 계속 해서 낙도 선교와 남아시아 선교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는 일본 히로시마와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울란비토르, 필리핀 마닐라, C국 S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셨던 주님을 본받아, 참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력하여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행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렘넌트 및 사회복지선교국과 협력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